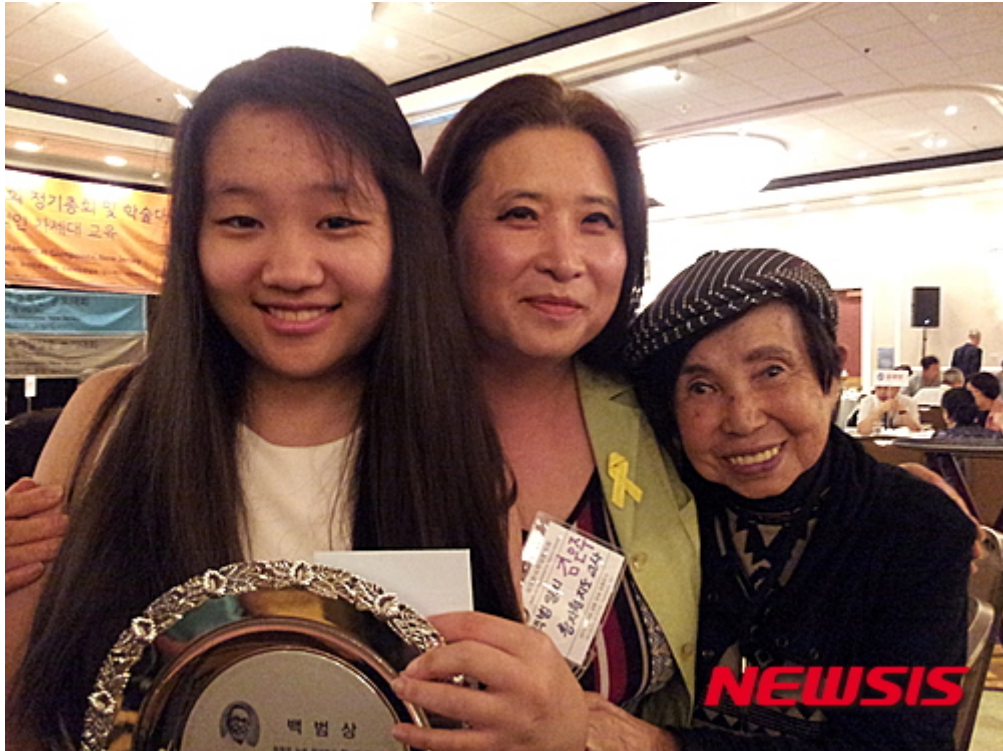


美황지원양 백범일지 감상문 대상 수상...NAKS 학술총회 시상식



【뉴욕=뉴스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내 한국(한글)학교들의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18 일 2 박 3 일간의 학술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뉴저지 티넷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NAKS(총회장 최미영) 총회는 미 전역 14 개 지역협의회 800 여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느때보다 알차게 진행됐다. 각종 특강과 세미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약 50 개에 달하는 세부행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광복 70 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을 주제로 전체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9 일 제 5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황지원양이 허병렬 뉴욕한국학교 설립자, 지도교사 김은주씨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2015.07.18. <사진=김은주교사 제공> robin@newsis.com 2015-07-19

LiveRe Widzet

800 여 한국학교 교육자들 뉴저지서 2 박 3 일 행사 성료

【뉴욕=뉴스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내 한국(한글)학교들의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18 일 2 박 3 일간의 학술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뉴저지 티넷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NAKS(총회장 최미영) 총회는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교육'을 주제로 미 전역 14 개 지역협의회 800 여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느때보다 알찬 행사로 진행됐다.

지난 사흘간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한국바로알리기' 특강을 시작으로 정기총회와 만찬까지 약 50 개에 달하는 강연과 세미나, 토론회, 시상식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뉴욕=뉴스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내 한국(한글)학교들의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18 일 2 박 3 일간의 학술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뉴저지 티넷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NAKS(총회장 최미영) 총회는 미 전역 14 개 지역협의회 800 여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느때보다 알차게 진행됐다. 각종 특강과 세미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약 50 개에 달하는 세부행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광복 70 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을 주제로 전체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2015.07.18. <사진=Newsroh.com 제공> robin@newsis.com 2015-07-19

한인 2 세와 3 세, 한국에 관심있는 미국인들을 가르치는 한국학교 교사들은 연중 최대의 행사를 함께 하며 우의를 다지고 재미한국학교 발전을 위한 유익한 기회의 장으로 삼았다. 특히 올해는 1.5 세출신으로 성공한 사업가인 하형록 팀하스&어소시에이츠 대표가 기조강연을 했고 반크의 21 세기 신헤이그특사팀과 청주시(시장 이승훈) 고인쇄박물관 홍보단이 함께 했다.

지난 16 년간 한국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역사왜곡을 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광복 70 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을 주제로 전체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개교 20 년 이상된 학교와 근속 10 년이상 모범교사들에 대한 표창과 제 11 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만점 수상자 등 각종 시상식도 펼쳐졌다. 마지막 날인 19 일엔 만찬에 앞서 제 2 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시상식과 제 5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시상식이 함께 열려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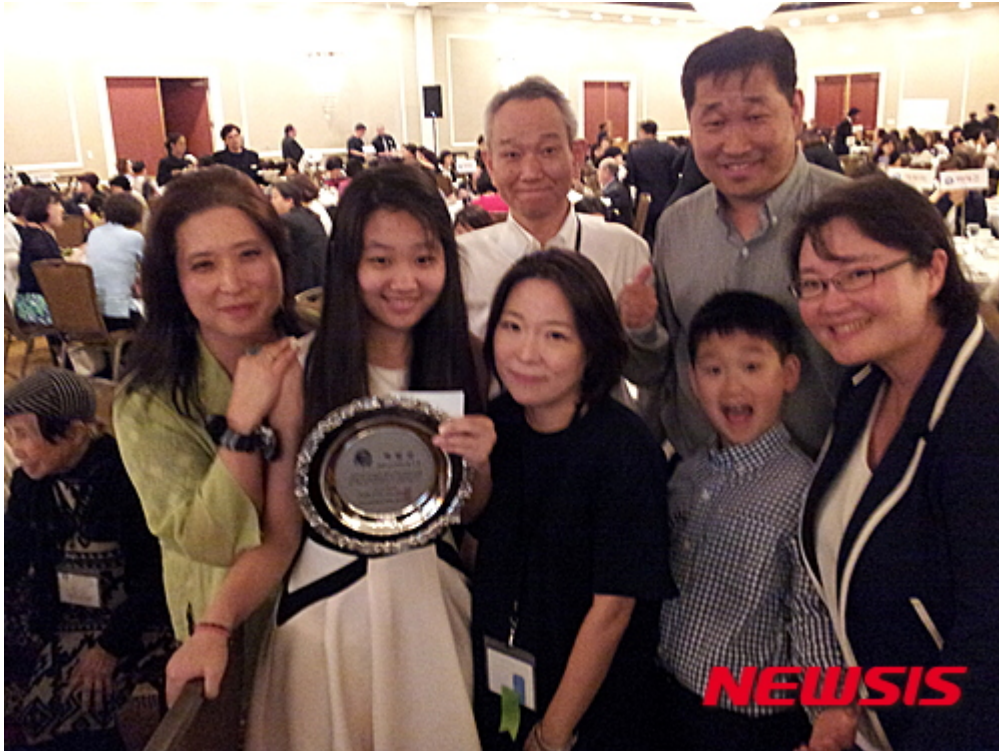


【뉴욕=뉴스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내 한국(한글)학교들의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18일 2박 3일간의 학술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뉴저지 티넷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NAKS(총회장 최미영) 총회는 미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800여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느때보다 알차게 진행됐다. 각종 특강과 세미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약 50개에 달하는 세부행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올 행사에 '21세기신헤이그특사단'을 파견한 반크 박기태 단장(왼쪽)은 '광복 70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을 주제로 전체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2015.07.18. <사진=Newsroh.com 제공> robin@newsis.com 2015-07-19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는 백범상에 김수현(필라 임마뉴엘한국학교) 교사를 비롯, 5명이 수상했고 독서감상문 시상식은 황지원(뉴욕한국학교 9학년) 양 등 13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황지원 양은 '김구의 꿈'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김구의 꿈과 이상이 나와 공동체가 변화를 이루는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설득력있게 제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황양은 수상소감에서 "틀린 맞춤법도 있었을텐데 대상 수상자가 되었다고 해 놀랐다. 내가 김구 선생에게 던졌던 질문, 세상에 던졌던 질문,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뉴스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내 한국(한글)학교들의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18일 2박 3일간의 학술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뉴저지 티넷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NAKS(총회장 최미영) 총회는 미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800여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느때보다 알차게 진행됐다. 각종 특강과 세미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약 50개에 달하는 세부행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광복 70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할 일'을 주제로 전체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9일 제 5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황지원양이 김은주 씨등 지도교사, 친지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2015.07.18. <사진=김은주교사 제공> robin@newsis.com 2015-07-19

허병렬 뉴욕한국학교 설립자와 함께 수상을 축하한 지도교사 김은주 씨는 "한인 3세인 지원이가 백범일지를 읽고 김구선생이 꿈꾸던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오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고 쓴 글을 보고 정말 대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4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2016 년 7 월 14~16 일 열린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미영 총회장은 "미주 한국학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국학교의 교육대상이 2 세에서, 3 세, 4 세, 다문화가정 자녀, 입양학생, 한류 팬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올해 행사는 한국학교 교육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나 한국어교육이 아니라 차세대학생들의 바른 정체성 함양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robin@newsis.com

[출처:2015_07_19_뉴스시스]